

종합

‘명칭 논란’ 내장산 국립공원서 백양사지구 분리
‘백암산 국립공원’ 만들자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 등 추진에
전북지역 의원들 난색...진통 예상

정부가 내장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백암산(백양사)을 따로 떼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내장산 국립공원 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한 김효석 의원(정읍) 등 전북지역 의원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원지역에서 분리, 새로운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지목됐다. 김 대표는 그러나 “내장산 국립공원이 전남과 전북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전남과 전북지역 정치권의 위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김원주 전북도지사를 두 차례 만나 이 뜻을 전달했고, 김원기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을 만나 꾸준히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영 전남보안 문제논의한 결과 백암산 지구를 내장산 국립

남도에서는 최근 ‘백암산 국립공원 분리 지정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내장산 남부사무소를 ‘내장산·백암산사무소’로 변경하는 등 백암산 국립공원 분리 지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원기 의원 등 내장산 인근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내장산 국립공원의 분리 방침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백암산 국립공원 지정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장성군민들은 지난 36년 동안 ‘내장산 국립공원’이라는 명칭은 내장산 국립공원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백암산은 물론 고불총림 백암사의 존재가 부각되지 않는다면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을 중부세 대상자 1만명

전국 48만명 ... 남부세액 65% 늘어난 2조8천억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광주·전남지역 1만여명을 포함한 48만 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38% 늘었다. 또 주택에 대한 중부세를 내는 개인 10명 중 6명 정도가 다주택 소유자였으며 지난해보다 38% 늘었다. 또 주택에 대한 중부세를 내는 개인 10명 중 6명 정도가 다주택 소유자였으며 지난해보다 38% 늘었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원래 중부세는 12월 1~15일이 신고·납부기간이었지만 올해는 12월 15일이 토요일이어서 기간이 17일(월요일)로 자동 연장된 것이다. 전체 중부세 대상자 중 개인은 47만 1천명으로 39.8%, 법인은 1만 5천 500명으로 3.1% 각각 증가했다.

자가 기준 6억원이상은 38만3천명으로 59.8% 늘어났다. 주택에 대해 개인 납세 대상자는 37만9천명으로 59.9%, 법인은 4천개로 33.3% 증가했다. 토지에 대한 중부세 대상자는 12만9천명으로 2.3% 감소했다. 토지에 대한 개인 납세 대상자는 11만5천명으로 3.4% 줄었고 법인은 1만 4천 500명으로 7.7% 늘어났다. 국세청은 중부세를 신고기간에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경우 분납할 수 있지만 기간을 넘기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에 대한 중부세 대상자(공시

대불산단 ‘조선산업 혁신 클러스터’

국가 지정 ... 내년부터 국비 100억 투입 산학연관네트워크 구축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조선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지정돼 지역 경제를 이끄는 혁신거점 지역으로 육성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주재 ‘혁신클러스터 정책 보고회’에서 대불산단이 ‘중형조선산업 혁신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

다. 이는 전남도가 조선산업을 서남권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그 동안 국회 포럼 2차례, 산업클러스터학회 초청 워크숍 등을 거쳐 사업계획 수립 및 응모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3년 동안 매년 국비 100억 원을 투자해 대불산단·삼진산단 등 조선업종 산단과 신설 조선단지 등을 대상으로 산학연관네트워크 구축, R&D 역량 강화,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가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첫 해인 2008년도에는 ‘대불산단 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하고 ‘혁신클러스터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특화기술을 통한 대불산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생산액이 2006년 6천억원에서 2010년 2조2천억원으로 각각 증가하는 등 상당한 생산·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수해복구 부실 추방 결의’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 전국 지자체의 방재 및 감사담당 공무원 등 300여명은 지난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월도 인제군 한계리2리 집단이주지역 내 수해복구현장에서 ‘수해복구 부실 추방 결의문’을 채택한 뒤 신서하고 있다.

빛의만평 - 김중두. A cartoon illustration showing a person sitting at a desk with a computer, looking thoughtful. The text '내년 총선때 돌풍이 불수도 있겠다' (There could be a storm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is written below.

수직 이륙 수평 비행 ‘스마트무인기’ 고형 항공센터 시험비행 성공. 고형 항공센터에서 스마트 무인기(사진)가 수직으로 이륙해 수평 비행하는 ‘천이비행(틸트로터)’에 성공했다. 천이비행은 헬리콥터처럼 회전축을 90도로 변환해 수직 이륙하고 비행기처럼 수평으로 비행한 후 다시 수직 착륙하는 기술을 말한다.

‘뇌물 강종만 영광군수 “기초질서 잘 지킵시다”’ 항소심서도 징역 5년형 광주시 전담부서 신설.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 전국 지자체의 방재 및 감사담당 공무원 등 300여명은 지난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월도 인제군 한계리2리 집단이주지역 내 수해복구현장에서 ‘수해복구 부실 추방 결의문’을 채택한 뒤 신서하고 있다.

2008년도 광주지역 첨단부품·소재 인프라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공고. 광주지역 첨단부품·소재 인프라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과제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062) 220-0524, ☎(062) 227-9600, FAX: 227-9500

조직변경 및 주권제출 공고. 본 회사는 2007년 11월 29일 인사주주 총회에서 주주 전원일치에 의하여 유한회사 태우산업(가칭)으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재권자는 본 공고게시일 익일부터 30일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광 정진표(1955. 4. 10. 생)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신청에 따른 관할 법원 제1082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금당부동산. ☎ 223-7400, ☎ 016-632-5659

주식회사 태우산업. 광주 북구 삼각동 752-16, 대표이사 문 종 식, TEL: (062) 2575-7445

구합니다. 부동산의 매매·교환·개발·건축 등의 각종 물건을 구하여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산행안내. 12월 2일(일) ▲빛고을광주신문이동아재활원 환경 안전 12월2일(일) 08시 10분... 12월 3일(월) ▲광주광역시청 31층 대강당 12월5일(수) ▲창곡산악회 31층 대강당 12월5일(수) 08시 30분... 12월 6일(목) ▲광주광역시청 31층 대강당 12월6일(목) 08시 30분... 12월 8일(토) ▲광주광역시청 31층 대강당 12월8일(토) 08시 30분...